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 130
JUNE 5 2020

발간년월 2020년 6월 5일 (통권 제130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김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터미널 재개발 추진
- 러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 선박, 세계 최초로 상업 운영
- 1월~4월 국제 운송화랑, 프리모리아-2 물동량 60% 증가
- 5월 무르만스크항만, 북극 물동량 5만 5,000톤 처리
- 우크라이나의 미국 산 LNG 수입에 대한 우려 대두
- 카작 텡기즈 유전, 코로나19와 저유가로 해고자 속출

주요 통계

- 2020년 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터미널 재개발 사업 추진

■ 러시아 항만 연방 프로젝트의 하나로 퍼시픽 로지스틱(LTD, Pacific Logistic)은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14번 작업장에 위치한 해상구조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a)}

- 이 사업은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인프라 확장 및 현대화 종합계획 2024에 들어 있는 교통 관련 프로젝트의 하나임
- 사업에 들어 있는 터미널 재건축과 접근수로 건설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선박이 입항할 수 있음
- 재건축 사업으로 터미널 수용능력은 22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로스모르포트(Rosmorport)가 1,200m 길이, 수심은 10.5m인 주 운송 수로로 건설작업을 진행 중이며, 퍼시픽 로지스틱은 안벽 높이를 150m에서 220m까지 확대할 예정임

그림. 터미널 재개발 계획도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odin_iz_prichalov_porta_vladivostok_udlinyat_do_220_metrov.html

■ 투자자인 퍼시픽 로지스틱은 부두 연장계획 및 졸로토이 로그(Zolotoi Rog)만 동부지역에 위치한 접근수로 건설과 관련한 문서처리 절차를 완료함

- 선박이 부두에 정박할 수 있는지 모델링을 진행했으며, 계획된 경제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및 평가 관련 참고 사항 자료는 준비되어 있음
- 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청회는 연해주 지역 내 코로나 확산방지 조치로 일정이 변경된 바 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 a) <http://www.morvesti.ru/news/1679/83657/>(2020.6.3.검색)
- b)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odin_iz_prichalov_porta_vladivostok_udlinyat_do_220_metrov.html(2020.6.3.검색)

러 해상 부유식 원자력 발전선박, 세계 최초로 상업 운영

■ 2020년 5월 22일 유일한 해상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가 상업적 운영을 시작함^{a)}

- 이 부유식 원전 사업은 로사톰(Rosatom)에 속한 콘체른 로스에네르고아톰(Kontsern - Rosenergoatom)^{b)}의 프로젝트임
- 안드레이 페트로프(Andrei Petrov) 로스에네르고 아톰 회장은 해당 명령서에 서명하면서, 추코트카 자치구의 페베크(Pevak)시에서 진행된 해상 부유식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이 발전소는 러시아 내 11번째로 건설된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이자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발전소라고 설명함
- ‘아카데미 로모노스프’(Akademic Lomonosov)의 길이는 140m, 넓이는 30m이며, 배수량은 2만 1,500톤으로 수명은 40년임
- 해상 부유식 원전은 해안 기반 시설과 부유 동력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유 동력 발전소는 KLT-40S 원자로 2기로 구성되어 있음

■ 로스에네르고아톰의 조스(ZOS, 부유식 원전이 설계도에 따라 건설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는 로스테흐나드조르(Rostekhnadzor, Federal Service for Ecological, Technological and Nuclear Supervision)의 극동지역 운영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명령서의 근거 자료로 제출됨

- 또한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 감독청(Rosprirodnadzor)의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받았음
- 이 문서들은 부유식 원전이 위생 및 환경, 화재, 건축 요건 및 국가 기준 면에서 완벽히 준수했음을 증명함

■ 지난해 12월 19일 이 부유식 원전은 격리되어 있는 추코트카 차운-빌리빈스크(Chun-Bilibinsk) 에너지센터에 최초로 전기를 공급한 바 있음^{a)}

- 차운-빌리빈스크 에너지센터에 필요한 전기량의 20%를 부유식 원전이 공급하고 있음
- 빌리빈스크 원전 가동을 중지한 후에는 해상 부유식 원전이 추코트카 내 주요 에너지원이 될 예정임

그림.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아카데미 로모노소프’(Akademic Lomonosov)



자료: <https://www.1sn.ru/234148.html>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edinstvennaya_v_mire_plavuchaya_atomnaya_teploel_ekstostanciya_vvedena_v_promyshlennuyu_ekspluatatsiyu.html(2020.6.3.검색)
- b) Rosenergoatom Joint-Stock Company (Rosatom State Corporation의 전력 부서의 일부)은 러시아의 주요 전력 회사 중 하나이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임
- c) <https://ria.ru/20191219/1562573532.html>(2020.6.3.검색)

1월~4월 국제운송회랑, 프리모리에-2 물동량 60% 증가

■ 1월부터 4월까지 국제 운송 회랑 "프리모리에-2(Primorye-2)"를 거쳐 중국에서 자루비노 항으로 운송된 화물량이 64.8% 증가함

- 극동 철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국에서 국제 운송 회랑 "프리모리에-2"를 통해 운송된 화물량이 2019년 동기 대비 64.8% 증가한 6,100 톤에 달함
- 주요 운송 화물은 구리와 식품이며, 중국으로 운송된 화물량은 9,800 톤에 달함
- 5월 초 중국에서 자루비노 항까지 약 1,500 톤 이상의 화물이 도착함
- 반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운송된 화물량은 약 220 톤임

■ “프리모리에-2”는 중국~러시아, 그리고 한국~일본 간 화물 운송을 위한 국제 운송 회랑임

- “프리모리에-2”는 중국~러시아, 그리고 한국~일본 간 화물 운송을 위한 국제 운송 회랑으로 주요 노선은 창춘(중국), 길림(중국), 훈춘(중국), 크라스키노(러시아), 그리고 자루비노 항(러시아)임
-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제 운송 회랑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이루어짐
- 중국 길림과 러시아 자루비노 항으로 가는 화물의 환적은 각각 국경경계지점인 훈춘(중국)과 마할리노(러시아)에서 이루어짐
- 중국에서 온 컨테이너 화물은 러시아 자루비노 항으로 이동 후 해상을 통해 한국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운송됨
- 2030년까지 “프리모리에-2”를 통해 운송될 잠재적 화물량은 밀, 대두, 쌀 등 곡물 약 2,300만 톤이며, 컨테이너 화물은 약 1,500만 톤임

그림. 프리모레-2



자료: <http://russiachina-eastcargo.com/ru/transport-corridors>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65)

참고자료

- [http://vch.ru/event/view.html?alias=gruzopotok_cherez_transportnyi_koridor_primore-2_vyros_na_60_s_nachala_goda\(2020.5.25.검색\)](http://vch.ru/event/view.html?alias=gruzopotok_cherez_transportnyi_koridor_primore-2_vyros_na_60_s_nachala_goda(2020.5.25.검색))
- [http://russiachina-eastcargo.com/ru/transport-corridors\(2020.6.4.검색\)](http://russiachina-eastcargo.com/ru/transport-corridors(2020.6.4.검색))

5월 러 무르만스크 항만, 북극화물 5만 5,000 톤 처리

■ 5월 한 달 동안 러시아 무르만스크 항만에서 5만 5,000 톤이 넘는 북극 화물이 처리되었음

- 2020년 5월은 북극 화물 급증으로 무르만스크(Murmansk) 상업항에 매우 바쁜 달이었음. 5월 초부터 항만에서 5만 5,000 톤 이상의 화물이 처리되었음
-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 인프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작업을 위한 건축 자재 화물이 주로 처리되었음
- 지난 주말, 무르만스크 주의 채석장에서 생산된 1만 350 톤의 석재를 선적한 “북극 프로젝트(Severny Proekt)”선박이 무르만스크 항을 출항함
- 무르만스크 항에서 출항한 선박은 북극항로를 따라 야말(Ymal) 반도 동부 해안에 위치한 사베타(Sabetta)항으로 향했음

■ 무르만스크 항만의 처리능력과 유능한 인력, 그리고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성공적인 화물처리가 가능했음

- 비탈리 블라소프(Vitaly Vlasov) 무르만스크 항만 수석 파견원은 5월 중 일반화물과 벌크화물이 모두 무르만스크항에서 처리되었다고 언급함
- 무르만스크 항만에서 아톰플롯(Atomflot)의 원자력 쇄빙 컨테이너선 “세브모르뿌찌(Sevmorput)”는 일반화물을 적재하고, 건조 화물선은 분쇄된 석재를 적재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음
- 비탈리 블라소프는 “항만의 역량과 유능한 인력, 그리고 적절한 계획을 통해 항상 정확하고 시의적절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함
- 또한, 그는 5월말까지 북극항로를 항해하는 2척의 선박이 무르만스크 상업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그림. 무르만스크 상업항 석재 적재 작업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may_2020_goda_okazalsya_udarnym_dlya_murmanskogo_morskogo_torgovogo_porta.html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may_2020_goda_okazalsya_udarnym_dlya_murmanskogo_morskogo_torgovogo_porta.html(2020.5.25. 검색)

우크라이나의 미국 산 LNG 수입에 대한 우려 대두

■ 우크라이나 각료회의는 5월 27일 미국 회사 루이지애나 천연가스 수출사(Louisiana Natural Gas Exports)와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인도받기로 합의했음

- 2019년 8월 말 우크라이나, 폴란드, 미국 간 에너지 분야에 대한 3국 협력 각서가 체결됐음
- 지난 3월 콘스탄틴 치즈히크(Konstantin Chizhik) 우크라이나 에너지 환경보호부 차관은 3국 협력 승인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수치와 의무를 담은 각서를 체결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했음
- 5월 27일 합의한 각서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의 장기 공급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와 EU에서 국경 간 가스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천연가스 공급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데니스 쉬미갈(Denis Shmygal) 우크라이나 총리는 LNG 수입량이 연간 55억m³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약은 폴란드와 협력하여 새로운 기반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가스 운반 시스템 역량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폴란드 LNG 터미널에 가스가 운송되어 액화돼 가스관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폴란드 가스 허브 게르마노비체(Germanowice)와 우크라이나 빌체볼리츠키(Bilce-Volitsky) 가스저장소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설치, 운영될 예정임
- 기본 가격은 헨리 허브 가스 교환에 따라 책정되어 최종 가격은 공급량을 고려하여 결정됨. 운반 조건에 따라 가격은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파이프라인 가스보다 5배 이상 높아질 수 있음

■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은 상업적 관점에서 경제성이 없으며, 지정학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함

-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LNG 수입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독립 및 안보 문제와 연관되며, 이를 통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에 대한 유럽 전체의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분석됨
- 한편, 우크라이나에는 LNG 수송 터미널이 없으며,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위해 지구 반 바퀴 이상 운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떨어짐
-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LNG 터미널 건설과 지하 저장시설 임대, 대유럽 가스 수송

과 관련한 대책이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했음

-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최근 몇 개월간 연료 수요가 감소하면서 미국의 셰일 가스 개발 지구가 대규모로 폐쇄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LNG 수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김현진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yunjink24@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svpressa.ru/economy/article/266751/?rss=1>(2020.6.1.검색)
- b) <https://riafan.ru/1280568-ukrainu-nazvali-koloniei-ssha-za-pokupku-gaza-iz-luiziany>(2020.6.1.검색)
- c) <https://vesti.ua/business/economics/dorogoj-gaz-dlya-nishhej-strany-zachem-ukraina-budet-pokupat-gaz-iz-ssha> (2020.6.1.검색)

카작 텡기즈 유전, 코로나19·저유가로 해고자 속출

■ 카자흐스탄 북서부 아티라우 주(Atyrau Region)에 위치한 텡기즈(Tengiz), 카라차가낙(Karachaganak) 석유가스전 지대에서 작업 중인 직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하였음

- 석유가스전 개발 참여기업인 리얼 컨스트럭션(Real Construction) 측은 텡기즈 유전지대에 위치한 자사 직원 기숙사에서 4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전 직원 격리 및 작업 중단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현재 텡기즈 석유가스전 운영은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정상운영 상태로 복귀할 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
-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전 세계적인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텡기즈 석유가스전을 비롯한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음. 누를란 주마굴로프(Nurlan Zhumagulov)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서비스기업 연합회장은 “현재 저유가와 코로나로 인해 신규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석유가스 산업 종사자들의 인사권을 정부가 관할할 것을 청원하기도 하였음

■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분야에서 인력 감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 또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

- 기업연합회 측의 인사권 관리 요청은 최근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인한 대규모 해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5월 26일 기준 텡기즈 석유가스전에서 근무하는 1만 8,000여명이 해고되었으며, 추가로 7,500명 규모의 인력 감축까지 논의되고 있음
- 텡기즈 유전지대를 총괄 운영하는 컨소시엄 “텡기즈체브로일(Tengizchevroil)”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3분기에 추가적으로 9,000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으며, 연말에 이르러 실업자 수가 3만 6,000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또한 인력 감축으로 석유가스 생산량 또한 30%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누를란 노가예프(Nurlan Nogayev) 카자흐 에너지부 장관 또한 현재의 위기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3,500명 또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고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에너지부는 석유가스기업에 세제혜택을 발표하고, 석유가스전 지대에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최근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인해 중단된 업종인 유정 수리, 시추 및 프래킹(fracking, 수압파쇄를 통해 석유 및 가스를 분리하는 공법) 전문 근무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음

그림. 텡기즈, 카라차가낙 유전지대 위치



자료: <https://ogj.com>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mirinae2929@gmail.com/+7 981-198-65-06)

참고자료

- a) https://ru.sputniknews.kz/press_center/20200526/14070611/Massovoe-zarazhenie-koronavir-usom-na-Tengize-i-Karachaganake-kak-vspykhnula-epidemiya.html (2020.5.27.검색)
- b) <https://ru.sputniknews.kz/radio/20200526/14074030/Pochemu-nuzhna-natsionalizatsiya-kadrov-v-neftegazovoy-otrasli--Zhmagulov.html> (2020.5.27.검색)
- c) <https://ru.sputniknews.kz/economy/20200526/14074818/S-Tengiza-mogut-byt-demobilizovany-esche-75-tysyachi-rabochikh.html> (2020.5.27.검색)



주요 통계



표. 2020년 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9.26 (-2.3%)	6.43(+3.0%)	15.69	+1.8%
북극해	1.97 (-12.0%)	5.8(-0.9%)	7.77	-4.2%
발트해	7.78(-2.5%)	13.04 (+10.9%)	20.83	+5.3%
아조프-흑해	6.92 (-4.5%)	11.89 (-3.4%)	18.8	-3.8%
카스피해	0.32 (+41.6%)	0.39 (+50.8%)	0.71	+46.7%
합계	26.25 (-2.3%)	37.57(+3.0%)	63.81	+0.7%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82659/?sphrase_id=2939703\(2020.4.13.검색\)](http://www.morvesti.ru/news/1679/82659/?sphrase_id=2939703(2020.4.13.검색))

표. 2020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77,034.4	56,173.8	831.3	479.1	277,865.6	56,653.0
광물 제품	1,047,992.8	13,920.1	23,291.0	37,774.8	1,071,283.7	51,694.9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71,684.4	13,463.9	0.0	0.0	971,684.4	13,463.9
생고무 및 화학 제품	2,749.7	34,126.2	481.0	333.7	3,230.7	34,460.0
가죽원료, 모피 제품	38.8	1,052.1	3.6	16.8	42.4	1,068.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56,537.5	3,669.9	623.3	58.7	57,160.8	3,728.6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3,316.9	22,431.2	82.0	311.1	3,398.9	22,742.3
금속 및 금속 제품	24,354.7	29,367.5	44.4	430.1	24,399.0	29,797.6
기계류	67,479.0	257,549.5	1,653.2	638.1	69,132.2	258,187.6
기타	339,661.9	22,038.3	39,322.1	220.0	378,984.1	22,258.3
합계	1,819,165.6	440,328.7	66,331.9	40,262.4	1,885,497.5	480,591.1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0.3.15.검색\)](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0.3.15.검색))

표. 2020년 2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동어	130,172	311,010.3	2,392.1	8,024.5	108	148.5	-	-	130,280	311,158.8	2,392.1	8,024.5
연어류	6,184	14,803.6	-	-			-	-	6,184	14,803.6	-	-
넙치	122	2,046.5	-	-			-	-	122	2,046.5	-	-
가자미	4,088	5,638.5	-	-			-	-	4,088	5,638.5	-	-
가자미류	2,591	6,420.9	-	-			-	-	2,591	6,420.9	-	-
청어	7,963	16,382.2	-	-	108	148.5	-	-	8,071	16,530.8	-	-
대구	5,290	34,917.8	-	-			-	-	5,290	34,917.8	-	-
명태	93,847	206,259.4	-	-			-	-	93,847	206,259.4	-	-
농어	2	5.2	-	-			-	-	2	5.2	-	-
간, 곤이 (어란)	4,466	16,470.6	-	-			-	-	4,466	16,470.6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282	1,037.7	-	-			-	-	282	1,037.7	-	-
생선 필렛, 어육	7,695	29,525.5	88.0	2,974.3			-	-	7,695	29,525.5	88.0	2,974.3
건어, 훈제, 염장, 어분	4	83.5	23.2	291.2			-	-	4	83.5	23.2	291.2
갑각류	2,822	110,826.4	14.9	246.6	0.3	17.8	-	-	2,822	110,844.1	14.9	246.6

계류	1,772	98,846.5	-	-	0,3	17.8	-	-	1,772	98,846.5	-	-
조개류	498	11,358.1	-	-			-	-	498	11,358.1	-	-
오징어류, 문어류	417	7,543.1	14.0	116.8			-	-	417	7,543.1	14.0	116,8
수산 무척추 동물	816	5,369.1	-	-			-	-	816	5,369.1	-	-
성게류	816	5,359.2	-	-			-	-	816	5,359.2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document/233675\(2020.4.13.검색\)](http://dvtu.customs.ru/folder/230467/document/233675(2020.4.13.검색))